

소비자

소주 8.19% 인상... 대선 뒤 식탁물가 들쭉

밀가루·콩나물·두부 10%이상 ↑... 한파에 채소값도 급등

대선이 끝나자마자 식탁 물가가 치솟고 있다. 정부 눈치를 보며 가격 인상을 미뤘던 식품·주류업체들이 대선 직후 줄줄이 인상에 나선데다 때 이른 한파로 신선식품 가격도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민의 술인 소주를 비롯해 밀가루 가격이 오른데 이어 두부, 콩나물, 조미료 등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소주 참이슬 출고가 22일부터 8.1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참이슬과 참이슬 클래식(360ml)의 출고가격은 병당 888.9원에서 72.8원 오른 961.7원으로 변경된다. 하이트진로의 소주값 인상은 2008년 12월 이후 4년만이다. 하이트진로측은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1.4%에 이르고 원료비, 포장재료비,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17.35%에 달했으나 최대한 원가절감과 내부흡수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주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올리면서 롯데주류를 비롯해 각 지역 소주 값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연말 인상설'이 제기됐던 밀가루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국내 3대 제분업체인 동아원은 21일부터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CJ제일제당도 밀가루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밀가루 가격 인상은 빵, 과자, 국수, 라면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콩나물, 두부 가격도 10% 인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이어 중가집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 이른 한파 등 감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다. 여름철 태풍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던데다 초겨울 냉해로 농산물 생육저하 현상까지 겹쳐 출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당근(상·20kg) 가격은 6만5000원으로 일주일 사이 35.4%나 급등했다. 지난해 2만원에서 3.2배 이상 뛰었다. 일주일 전에는 2만3000원에 거래됐던 파프리카(상·5kg)도 4만원으로 73.9%나 폭등했고 깻잎(상·2kg)도 일주일 사이 1만원(50%)이 올라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산물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러 어업 분쟁 탓에 명태와 게의 어획 물량이 대폭 줄고 있어 조만간 값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겨울 아웃도어는 패션보다 기능성

만발한 눈꽃과 빼어난 설경은 겨울에 만 느낄 수 있는 산의 매력이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와 눈, 바람 등 다른 계절보다 혹독한 기상조건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체온과 몸 균형을

잘 맞춘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산행을 할 수 있다. 밀레 관계자는 "겨울 아웃도어 용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성이다. 때문에 기능성 의류뿐만 아니라 방한용품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드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활동성을 위해서도 좋다. 특히 올 겨울은 한파가 유독 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방한효과가 좋은 해비 다운재킷이 인기다. 다운재킷은 필파워 600~800 정도면 좋다. 필파워 수치가 높을수록 충전재가 많은 공기층을 함유해 보온력이 높다. 단 1000급 이상의 고산에 오른다면 필파워가 800~900 정도 되는 다운재킷을 고를 것을 추천한다. 외에도 방풍·투습 등 기능이 있는 윈드스토프와 윈단을 사용한 제품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바지도 방풍·보온성이 뛰어나면서 신축성까지 갖춘 기능성 소재가 좋고 추울 경우에는 바지 위에 다운 팬츠를 한 겹 더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얼굴, 손 등은 바람에 직접 노출돼 저체온증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장갑은 방수성과 투습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길 권한다. 면장갑은 산행 시 손에 나는 땀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머리는 신체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가는 부위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고어텍스 소재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후한이나 강풍에 대비해 모자 내부와 귀덮개 부분을 기모처리해 보온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겨울에는 눈과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중등산화화가 필요하다. 발은 산행 시 많이 차고 눈길을 걷는 도중 눈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습기와 땀을 내보내는 투습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에 유난히 땀이 많이 난다면 여벌의 양말을 챙기도록 한다. 겨울철에는 흡습, 속건성이 우수한 울 맥스 소재의 양말을 신고, 울 소재의 두꺼운 양말을 겹쳐 신는 것도 방법이다. 등산화에 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찬 바람이 다리에 스며들지 않게 도와주는 스포츠를 사용해도 좋다.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해서는 아이젠과 등산용 스틱도 중요하다. 아이젠은 얼어붙은 길을 지날 때 없어서는 안될 겨울 산행 필수품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탈부착이 간편한 것이 좋다. 스틱은 미끄러운 산길에서는 무게 중심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스틱 끝이 잘 물개지지 않는 것을 고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안전한 겨울산행, 체온 유지 가장 중요
보온성·방수방풍 기능 겸비된 제품 좋아
투습력 갖춘 등산화 선택... 스틱·아이젠 등 필수



다운재킷은 보온성이 탁월한 해비다운이 적합하다. 방수·방풍 소재의 외피와 슬림한 다운재킷 내피로 구성된 것도 좋다.

스티크는 스틱의 끝이 잘 물개지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장갑은 방수성·투습력을 갖춘 제품이 좋다.

바지는 방풍·보온은 물론 신축성까지 갖춘 기능성 소재를 입는다.

등산화는 습기가 잘 스며들지 않는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중등산화화가 좋다.

(자료:밀레)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인하

전국 240만 가맹점 조정 완료... 내일부터 적용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 완료됐다.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내려갔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를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를 인하 혜택을 봤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고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였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가 유지된다.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다. 1만2000개 가맹점 가운데 1만1900개(99.2%)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화장품점(6만4000개, 98.5%), 미용실(7만4000개, 97.4%), 의류점(12만개, 95.2%), 실내장식업체(2만개, 95.2%)도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000개로 가장 많은 음식점은 49만5000개(84.8%), 병원은 6만1000개 가운데 4만4000개(73.1%)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우대수수료를 적

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2억원을 간신히 넘는 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을 1년 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건당 2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 가운데 1만개는 결제가 빈번해 높은 수수료가 매겨져야 하지만, 현행 수수료를 유지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소액다건 수수료를 책정 기준에 따라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돼 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평균 수준으로 수수료가 높아진다. 수수료가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이마트, 롯데

마트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은 강행한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을 수수료율 인상에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외 업종은 주유소, 전기·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한정됐다. 다른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협상을 대부분 마쳤다.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판매업체와 유니클로 등 대형 의류업체의 수수료율이 2% 안팎에서 정해졌다. 업계의 관심을 끈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독점 계약업체인 삼성카드와 1% 후반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주에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필뉴스

Table with 4 columns: 업종, 가맹점 수, 인상, 유지, 인하. Includes sub-table for 업종별 수수료율 인상·인하 비중.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Business Opening/Success)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